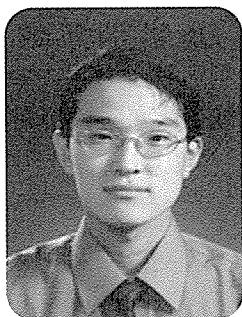


물류전문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마치고...

- 삼성전자로지텍 김 생 일 대리 -



국내 물류 전문기업에서 근무한지 이제 6년이다 되어간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물류 전문가로서 한 발자욱 더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관리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자격증이 채워 주지 못한 갈증이랄까... 실무적으로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물류협회에서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과감히 지원을 하게 되었다.

물류의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3개월(120시간)의 과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교육은 총 8개의 Module(물류컨설팅 기법론, 재고 관리,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기법, 수배송시스템, 포장시스템, 정보시스템 이해, 국제물류, SCM관련 기법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Module마다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진들이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타의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강의 후 강사와 수강자들이 함께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교육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진다. 이를 통해 피교육생들은 실무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

대로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

둘째, 국내외 현장학습을 통해 이론의 실제 적용사례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은 흥미유발과 지식함양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삼성테스코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 거대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일본 지역의 수십 년 된 물류업체 및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물류 업체 방문을 통해 물류선진국의 know-how 및 선진물류를 몸소 체험한 것도 이번 과정중의 커다란 경험이었다.

셋째, 그룹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 컨설팅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물류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해주며 그룹 구성원들간의 지식 공유, 토론 등을 통해 상호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협상을 통해 최종 협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우리조의 경우 매주 방과후에 늦은 저녁까지 그룹토의를 하며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보완될 부분도 없지 않다.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주최기관측의 강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강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되며, 협회차원에서의 운영하다보니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강료가 높은 것 또한 개선할 과제라 생각된다.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강의의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한다며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전문 물류인력의 양성이라 생각된다.

정부차원에서 전문 물류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물류전문대학원에 재정지원 등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Needs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전문가(專家),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어있다. 우리는 담당하고 있는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속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물류’라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쉽사리 전문가라는 호칭

을 붙이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물류전문가를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전문과정이야말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일 것이라 여겨진다.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어진 작금의 시대에서 물류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물류인들 에게 과감히 과정입문을 도전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물류를 이끌어 나가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는 것은 결코 요원한 외침이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물류**

